

# 일본에서 날아온 뜻밖의 소포

「韓國短篇小說選」을 손에 들고

李萬甲

서울대 명예교수 · 사회학

## 어느 일본인 학자의 죽음

수일전 소포가 집에 배달되었다. 일본에서 보낸 것이었다. 풀어보니 「韓國短篇小說選」이라는 책이었다. 해방직후부터 70년대까지 남한에서 발표된 단편소설 중 19편을 골라서 이와나미(岩波) 서점이 출판한 것이었다. 번역자는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초오 쇼오기찌(長璋吉), 그리고 책을 보낸 東京外大의 사에구사 도시가쓰(三枝壽勝) 교수 등 세사람이었다. 호화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펍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펴보니 「謹呈」이라고 쓴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역자의 한사람인 초오교수가 지난 11월에 작고했다는 것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충격적인 일'이라고 사에구사교수는 말했지만 나 역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난 여름 사에구사교수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에는 초오교수가 東京外大에서 새로 설립된 神田外大로 옮겼다는 얘기를 하였지만 그가 아프다는 얘기는 없었으니 갑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초오교수는 몇번 만난 일이 있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다. 한국문학을 일본에 알리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소수의 학자 중의 한사람이라는 것, 그가 저술한 한국문학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든다는 것, 그의 부인이 한국인이라는 것, 그런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여하튼 그는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소수의 일본인 학자의 한사람이다. 일본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는 오늘날, 그가 수행할 역할은 여간 크지 않은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아직도 그 쪽지에 써여 있는 글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게 여겨지지만) 그의 가족, 그가 속하고 있는 학교의 측근에서 느끼는 애통함은 말할 것도 없고, 韓日문학교류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우기 그의 나이는 아직 50에도 이르지 않아 앞으로 더욱 많은 업적을 올릴 것이 기대되었던 만큼 애석한 마음은 한결 더 강해진다.

그런 속절없는 감회를 느끼면서 나는 책을 이곳저곳 무심코 뒤적거렸다. 그러는 동안에 연말연초에 이 책을 차분히 읽어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갔다.

## 한국소설에 대한 나의 편견

나의 일과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다. 정년퇴임한 후에는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대폭으로 줄어들어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소설을 읽는 일은 거의 없다. 해방전후에는 꽤 많이 읽었지만

소설에는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에 더 관심이 쏠렸다. 素月이나 鄭芝溶의 시는 적지 않게 외고 있어서 지금도 가끔 읊어 본다. 소설로서 가장 최근에 읽은 것이 6·25 당시 공산군의 점령하의 서울에서 숨어서 「林巨正」을 읽은 것과, 10여년전 黃順元の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영화화되어 그를 감상한 소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작을 읽어본 것이 고작이니 그동안 한국소설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외국소설은 손에서 떠나서 일이 없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독서나 저술, 즉 학문적 노동을 중단하고 잠시 쉴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소설책을 읽는다. 같은 독서이지만 이때의 독서는 작업이 아니라 유희인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책은 재미있을 듯하여 사서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그만둘 때도 있다. 버린 돈이 아깝기도 하다. 그래서 좀처럼 사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도 늘어서 암기력이 감퇴하여 같은 내용을 몇번 읽어도 처음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두번 세번 읽는 책도 여러권 된다. 그러나 요사이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좋은 책이 손에 들어왔으니 안성마춤인 것이다.

연말연시에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한국의 소설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런 나의 소감을 어떤 한국의 유명한 문인(그때에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고 그처럼 유명한 줄은 더욱 모르고 있었다)에게 말한 일이 있다. 후에 들은 바로는 그는 그에 관한 내용의 글을 어디에 썼다고 하는데 물론 나를 언짢게 생각하고 썼을 것은 틀림없다.

나는 그런 느낌을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시의 대가에게 사담으로 말했다가 코를 다친 일이 있다. 힐난이니 면박이니 할 정도로 강한 것이 아니고 나의 무식에서 나온 무책임한 얘기를 뽕뽕히 여기고 가볍게 타한 것이다. 그때 옆자리에 시평론으로 유명한 S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독특한 시니컬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李선생, 코를 다치셨어"하고 강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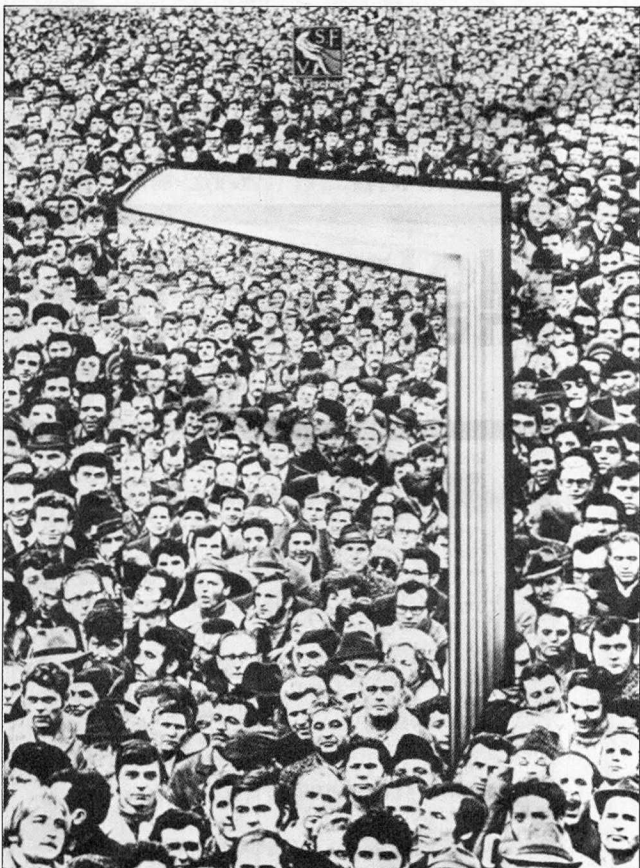
코를 다쳤으면 삼갈 만도 한데, 한국문학에

대한 나의 편견은 상당히 뿌리가 강한 것이어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선 나의 편견을 서두에 피력하고 나서 근자의 한국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물어보게 된다.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까닭은 한국인이 모든 면에서 의욕적이며,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면에서의 눈부신 활동을 문외한으로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실감하게 되니, 문학도 굉장한 발전을 보이고 있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적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일어번역 통해 眞味 맛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소설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것도 소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모습은 문화, 특히 그들의 언어와 언어를 매개로 민족이 체험한 것을 순수하게 표현한 시와 소설에 나타난다. 한국인은 지난 1세기 동안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체험을 하였다. 그 체험이 문학작품으로 결정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과정 속에 진전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것이다. 나는 「韓國短篇小說選」의 맛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金東里의 「興南撤收」를 잠시 읽어 보았다. 그러다가 맛을 볼 정도를 지나서 편편을 모두 읽어치우고 다음의 소설인 黃順元の「曲藝師」까지 읽기 시작했다. 일본어인데도 어색한 데가 별로 없었다. 이리다가는 연말연시까지 참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읽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다. 읽으면서 나는 일정시대 동경 築地(쓰게지) 소극장에서 상연된 「春香傳」을 觀劇했던 것이 생각났다. 일본말로 하는 대사였지만 한참 보고 있노라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던 말이 어색하지 않고 극 자체에 도취하게 되었다.

일어로 번역된 한국소설이 이처럼 재미있으면 원어로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번역을 통해서 나는 한국소설의 진가를 알게 된 셈이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소설을 구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듯한 생각이 든다.



S. Fischer社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포스터